



시로 읽는 성보순례
목조삼존불감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통일사리시대 ▶2면

깊어진 삶의 무게를 받아들여라.
이를 참고 견디며 살다보면
연험가는 기쁜 일이 생긴다.
(<수타나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단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4월 24일) · 주간

제 882 호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수행은 승가, 운영은 재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7일 종단 1차 쇄신계획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문에는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사찰 운영, 선거제도 개선, 승단 청정성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ahollo@hyunbul.com

“사부대중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산중공의 복원과 선거 공영제를 실시해 공명선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대 정규 제정과 시행해 승단 청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도박 파문 등으로 실추된 종단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계종 쇄신안이 발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7일 총무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수십년 간 사찰과 종단운영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부조리는 사찰과 종단 운영 시스템이 시대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최근에 불거진 종단 일각의 불미스러운 일도 전 근대적인 사찰운영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쇄신안에 대해 스님은 “이제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혁신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누적된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자성하면서 취약점을 전면 쇄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쇄신안은 크게 '재정, 선거, 청정성 확보'로 압축됐다. 재정 관련 쇄신계획은 5가지에 이를 만큼 그 비중이 컸다. 그간 여러 단계들에서 주장한 '운영은 재가가자, 스님은 수행과 교화'에 대한 의견은 사찰예산회계법을 통해 구현하기로 했으며, 사찰 모든 운영 수입에는 영

카드 사용 등 재정 투명화 추진
참회원 설치 등 승풍 개혁

수중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찰에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도록 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관람료 전자발권 시스템 설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문화돼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 협의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해 사부대중이 공히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직할교구

사찰, 교구본사, 특별분담금 사찰, 문화재구역임장료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를 시행하고 그 평가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사찰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종무원 양성도 제안됐다. 종무행정학교를 하반기에 시범 설치하고 2013년에는 정식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앙종무기관과 직영, 직할교구 사찰 종무원

재가 참여 사찰운영위 구성
자승스님 “바라지않던 안이었다”

간 인사 순환제도로 추진된다.

선거 제도 개정도 쇄신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선거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총무원과 교구가 부담해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를 함께 주는 선거 공영제 도입을 시급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직선제를 포함한 모든 방식을 종도들의 의견수렴 통해 제도를 만

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승단의 청정성을 위해 △현대적 정규 제정 △승풍 실추에 대한 '징계법' 제정 및 최저양형제 도입 △참회원 설치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승 스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루머와 의혹들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의 그간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나름대로 지난 해부터 자성과 쇄신결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중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간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의혹들이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들이고, 종단 총무행정 주장으로서 인행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간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단 책임자로서 10년 전 일어난 부적절한 일은 종단의 존엄, 종법의 절차를 거쳐 규명하고 처리하겠다”며 “하지만 제기된 의혹 중 바리이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잘못 시정 않고 종교갈등 여론 몰이?

사랑의 교회 신축 문제 불교-기독교 갈등 조장 우려

서초구가 서울시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 중단에 대해 6월 2일 '도로점용허가는 적법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종교간 갈등으로 번질 양상”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따라 '사랑의 교회 공사 중단'은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교회 측이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기부채납했을 뿐 아니라 통행이나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만큼 도로점용허가는 적법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현장

이는 서울시가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하며 도로점용허가는 공익·공공 시설에 관한 것으로 교회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결과를 서초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초구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던 황일근 의원은 사랑의 교회 측이 이를 종교간 갈등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황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교회 측에서 이 문제를 종교간

서초구, 서울시 감사결과 부정
사랑의 교회 공사 계속 진행

갈등으로 포장해 여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법령 위반에 관한 문제이지 종교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교회가 공공시설을 점령한 것에 대해 합법 여부를 가리고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이라며 “종교 갈등을 빚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추후 법

적 절차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한편, 이번 사건은 2010년 6월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서초역 3·4번 출입구와 연결된 지하 1-8층 깊이, 길이 154m에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해주면서 시작했다.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가 요구한 공간이 도로법상 지하실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서울시 시민감사유무부단은 교회 예배당과 주차장 공간을 도로법상 지하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도로를 내주는 대신 교회 신축건물 내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조건이 수반된 기부는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이전하는 것과, 건물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의 위법한 도로점용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초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령자·장애인 출가의 길 열리나

조계종교육원, 오는 14일 출가제도 공청회서 논의

고령자와 장애인 출가에 대한 종단 논의가 이뤄진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승진위)는 오는 6월 14일 오후 3시 국제회의장에서 '출가제도 개선과 출가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특수 출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교육원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승진위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고령자, 장애인 출가의 필요성과 방안을 역설했다.

야한다는 데 가섭 스님의 주장이다.

장애인 특수 출가의 경우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실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가섭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장애인과 질환자 차별은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장애인 출가를 통해 불교가 긍정적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불교 내 장애인 불자를 위해 전법 포교 전문인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섭 스님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출가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며 “10년이 지나면 승단의 출가자는 절반으로 줄고, 연령도 40대가 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사회에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현행 제도로 어렵다면 ‘고령자 특수 출가법’을 제정해

“출가제도 개선과 출가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는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이 ‘현행 출가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기초발제를,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이 ‘출가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과 방향’ 등의 발제를 진행하며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 행복한 절 주지 은산스님이 토론자로 나선다.

892호 INDEX

종합 불기2556년 하안거 결계 조계종 중핵모임 일탈야 해체	2
종단 조계종 1차 쇄신 계획 과제 한마을선원 눈산법당 기금 2억원 불교계 불법사찰 논란 확산	3
시방세계 경허 100주년 국제선수행 범회	5
열린마당 박원순 시장 '탈핵' 주제 좌담회	31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종단협·조계사, 조계종 쇄신계획 지지

각각 성명서 발표... “함께 노력할 것”

조계종이 발표한 1차 쇄신계획에 대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소속 각 종단과 조계사 신도회가 지지를 표명했다.

종단협 소속 종단은 6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 쇄신안에 담긴 재정 투명화와 청정승단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며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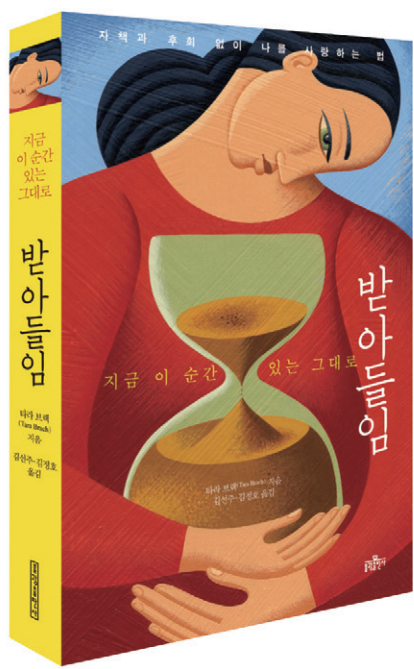
이어 올바른 승가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조계사 신도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성명서에서 “승단 청정성

회복, 사부대중공동체 확립, 종단운영시스템 개선, 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분류된 쇄신안에서 집행부의 개혁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지지를 표명하며 “사부대중과 함께 쇄신안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물러선 없는 정진과 쇄신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내가 싫어 나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행복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교보문고 에스24 심리학 베스트셀러 1위

타라 브래치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19,800원

헤민 스님이 추천한 심리치유의 바이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Radical Acceptance 한국어판!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헤민 스님
-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감정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뜻한 기분과 굳센 마음으로 관용과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탁났한스님
- “칭찬부터 마지막 때까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 독자 서평



2011·2012년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 TED 인기 강사!

영국 국회의원,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 물론 구글과 노무라증권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앤디 퍼디머의 ‘하루 10분 명상법’을 통해 세탁기처럼 요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비법을 배워 보자!

앤디 퍼디머 지음
윤상운 옮김
312면 | 15,000원